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에 미치는 영향 : 음주 거절 효능감과 폭음을 매개로*

이지현** · 최홍일**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 경험을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음주에 대한 기대가 음주거절효능감과 폭음을 매개로 문제 음주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음주경험이 있는 전국 대학생(4년제와 전문대 포함) 3,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음주거절효능감은 음주에 대한 기대가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부분 매개하여 음주기대가 바로 문제 음주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음 역시 직접경로 사이에 부분매개로 작용하여 음주에 대한 기대를 부분적으로 상쇄 또는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 음주에 대한 기대, 음주 거절 효능감, 폭음, 문제 음주 경험

* 이 논문은 2010년도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 연구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음.

**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본 논문은 공동으로 작성되었음.

I. 서 론

대학생들은 대학교 입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누리고 싶어 하며, 음주는 일탈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출구 역할을 한다. 또한 대학 저학년 시기에는 연령으로는 성인에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대학생을 성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대학생들의 음주에 허용적이다(이원재, 2001). 대학 시기는 성인이 되어 문제음주 습관을 가지게 되는 관문에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 시기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문제음주 습관 형성을 예방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10년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5.4%의 대학생이 지난 한 달 동안 음주한 경험(월간 음주율)이 있다고 답했으며, 94.4%의 대학생이 지난 일 년 간 음주한 경험(연간 음주율)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 자리에서 4~5잔의 술을 마시는 위험음주를 하는 대상자가 71.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위험음주를 2주 동안 1~2회 경험한 수시 폭음자가 42.3%, 3회 이상 경험한 상습 폭음자가 2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음주율은 대학생에게 음주와 관련 문제들을 일으키고 나아가 성인기의 음주양상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O'Neil, Parra & Sher, 2001).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음주양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음주 소비 패턴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음주에 대한 기대(alcohol expectancies)이다. Goldman, Brown과 Christiansen(1987)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따르면, 음주에 대한 기대는 알코올 효과에 대한 신념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발달하고 개인의 일생동안에 음주의 결정과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Young & Oei, 1993). 또 Oei와 Baldwin(1994)의 알코올 기대 이론(Alcohol Expectancy Theory)에 의하면, 음주는 단지 알코올의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고, 신념이나 그것과 결부된 영향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알코올의 행동적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알코올의 실제적인 물리적 활동이라기보다는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알코올의 힘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고 보는 것이다(Leigh, 1989).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음주 시 음주에 대한 기대로 'if-then'의 가정을 하게 되므로 음주에 대한 기대가 음주 행동에 대한 원

인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Goodman, et al., 1987).

대학생들의 경우 음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성인들보다 적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음주 결정 상황에서 그들은 주변 다른 사람들의 음주에 대한 반응과 사용에 바탕을 둔 음주에 대한 기대와 신념에 바탕을 두어 결정한다(Oei & Morawska, 2004). 따라서 음주에 대한 기대는 직접적인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음주 후 일어나는 음주로 인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음주에 대한 기대는 문제 음주자의 치료나 치료 후 재발이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해로운 음주를 예방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 경험에 대한 중요한 예측인자 혹은 조절인자로 음주에 대한 기대에 원인이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Martino, Collins, Ellickson, Schell, & McCaffry, 2006; Connor, Young, Williams & Ricciardelli, 2000; 탁영란 · 윤이화 · 안지연, 2007 재인용).

음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음주 거절 자기 효능감(Drinking Refusal Self-efficacy)이 음주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Hasking & Oei, 2002; Oei & Morawska, 2004; Morawska & Oei, 2005). 음주에 대한 기대는 음주 소비에 앞서 알코올의 소비가 개인에게 정적인지 부적인지를 기능하는 중요한 선행변수인데 반해, 음주 거절 효능감은 음주 결정 상황에서 개인의 판단과 실제 음주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Oei & Baldwin, 1994). 구체적으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란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음주상황에 적용시킨 것으로서, 특정한 상황에서 음주를 거절 혹은 저항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Oei & Morawska, 2004).

Oei와 Morawska(2004)의 모델에서 음주에 대한 기대와 음주 거절 효능감을 함께 고려할 때 음주자들의 행동에 대해 더 나은 유추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Abram과 Niaura(1987)는 “음주를 결정하거나 억제를 하기로 하는 것(자기통제)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상황적 맥락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결과 기대와 자기효능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언급하면서 알코올의 사용과 관련한 결과기대와 함께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류미 · 이민규 · 신희천, 201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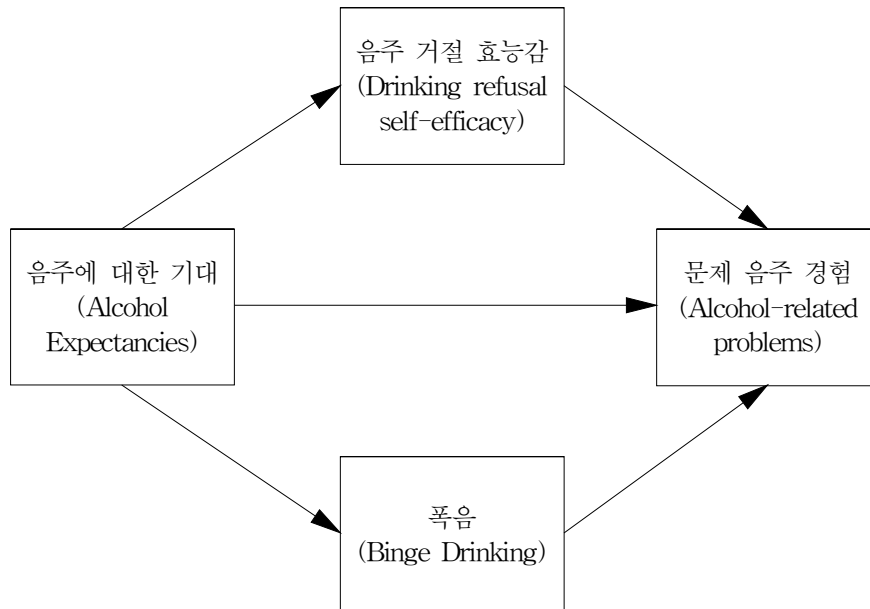
이러한 음주에 대한 기대와 음주 거절 효능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지만, 아직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못했다. 그 중 한 가지는 음주에 대한 기대와 음주거절 효능감을 동시에 한 과정으로 다룬 연구가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

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음주 거절 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그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을 매개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실제적인 알코올 소비인 폭음(binge drinking)을 들 수 있다. 음주에 대한 기대는 음주의 양과 빈도와 유의하게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있다(이민규, 1993; Oei & Morawska, 2004; Morawska & Oei, 2005). 즉, 음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음주의 양과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폭음 역시 음주량과 음주빈도의 횡수로 정의하는 것으로 음주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폭음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지난 2주 동안 1회 혹은 3회 이상 5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집단의 경우 위험행동 경험의 상대위험비가 비음주자에 비해 크게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Wechsl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 Castillo, 1994; Wechsler, Dowdall, Davenport, & Castillo, 1995b). 이러한 연구들은 폭음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 음주 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위험 음주자들의 경우 저위험 음주자들과 비교해서 사실상 음주의 효과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다(Balwin, Oei, & Young, 1993; Jones & McMahon, 1993). 이것은 역으로 음주에 대한 다른 기대가 폭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음주에 대한 다른 기대로 인해 문제 음주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에 영향을 미칠 때 폭음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검증하려고 한다.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 경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자가 가정한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음주 거절 효능감과 폭음이 매개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연구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지만 음주에 대한 기대가 양적음주와 문제 음주 모두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한소영 · 이민규 · 신희천, 2005). 따라서 음주에 대한 기대를 문제 음주 경험의 예측변인으로 보고 음주 거절 효능감과 폭음을 매개로 하는지를 한 모델 안에서 살펴보는 것은 문제 음주 경험의 감소를 위한 접근에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전국 4년제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총 4,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응답한 학생 중 지난 한 달 동안의 음주경험이 있는 3,468명을 분석에 사용 하였다. 이 중 여학생이 1,573명이고 남학생이 1,895명이었다. 학제별 분포는 4년제 42개 대학에서 대학생이 2,896명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884명, 2학년이 941명, 3학년이 951명, 4학년이 692명 이었다. 전문대학 21개에서 대학생이 572명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884명, 2~3학년이 1,892명이었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파악한 전국 4년제 및 전문대학 수에 근거하여 지역별, 계열별 다단계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학과는 계열 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음주에 대한 기대(alcohol expectancies)

음주에 대한 기대 문항은 음주의사결정균형(Maddock, 1997)을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Laforge, Maddock, & Rossi, 1999). 이 문항은 총 16개의 문항으로 음주와 관련된 장점 8개(술을 마시면 용기가 생긴다, 술을 마셔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등)와 단점 8개(술을 마시는 것은 내 건강에 해롭다, 나의 음주습관 때문에 내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 등)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런 편이다(1)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까지 5점 Likert척도로 되어있으며 문항 간 Cronbach's $\alpha=.87$ 이다.

2) 음주 거절 효능감(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음주 거절 효능감 문항은 수원시 대학생 음주실태 조사(김광기, 2008)에서 사용된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했던 상황' 문항과 미국의 하바드 대학교의 대학생 알코올 연구(College Alcohol Study)가 2년마다 미국 대학생 음주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코올 소비 설문지(Wechsler, 2001) 중 '주변의 권유로 억지로 술 마시는 경우'의 문항을 한국 대학생들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술 마시는 자리와 함께 마시는 파트너 그리고 상황을 묘사한 8개의 문항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 하다(1)부터 언제나 거절할 자신이 있다(5)까지 5점 Likert척도로 되어있으며 문항 간 Cronbach's $\alpha=.86$ 이다.

3) 폭음(binge drinking)

본 연구에서는 폭음(binge drinking)의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5잔 이상(여자인 경우는 4잔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Wechsler 1992, 2001), 문제 음주자가 많은 경우에 그 대상을 2주로 좁히고 계층화하도록 권장한 미국대학생 연구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삼육대학교, 2003). 폭음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은 '지난 2주 동안 한 자리에서 5잔 이상(여자인 경우는 4잔 이상)의 술을 마신 횟수가 1번 이상'일 경우이다.

4) 문제 음주 경험(alcohol-related problems)

본 연구에서는 음주로 인한 문제 경험 문항을 미국의 하바드 대학교의 대학생 알코올 연구(College Alcohol Study)가 2년마다 미국 대학생 음주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코올 소비 설문지(Wechsler, 2001)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알코올로 인한 신체적 증상 관련 항목 3개, 음주 후 성폭력 관련 항목 4개, 음주 후 폭력 관련 항목 2개 항목, 음주 후 대인관계 문제 관련 항목 3개, 음주로 인한 학업관련 문제 항목 2개)으로 전혀없음(1)부터 4번 이상(5)번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Cronbach's $\alpha = .82$ 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음주기대와 음주폐해의 경로에서 거절효능감과 폭음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이론적 단계에 의하여 경로분석 하였으며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또한 경로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진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수수준

조사대상자들의 응답된 변수수준을 기술분석한 결과, 음주에 대한 기대는 평균이 -2.05(SD=3.61)로 최소 -16부터 최대 +16점으로 이루어진 구간에서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경험은 14~70점 구간 중 평균 20.39(SD=6.2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절효능감은 평균 22.56(SD=7.34)로 보통의 수준이었으며 폭음은 2.78(SD=1.41)로 폭음 횟수가 2주일 기준으로 1번~2번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수준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음주기대	-2.05	3.6116	-16	16
문제음주경험	20.39	6.2479	14	70
음주 거절 효능감	22.56	7.3384	8	40
폭음	2.78	1.409	1	6

2. 상관관계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기대와 문제음주경험은 .164, 거절효능감은 -.083, 폭음은 .076이었으며 문제음주경험과 거절효능감은 -.185, 폭음은 .391, 거절효능감과 폭음은 -.195의 수치로 모두 $p < .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상관계수 역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관관계

	음주기대	문제음주경험	음주 거절 효능감	폭음
음주기대	1			
문제음주경험	.164(**)	1		
음주 거절 효능감	-.083(**)	-.185(**)	1	
폭음	.076(**)	.391(**)	-.19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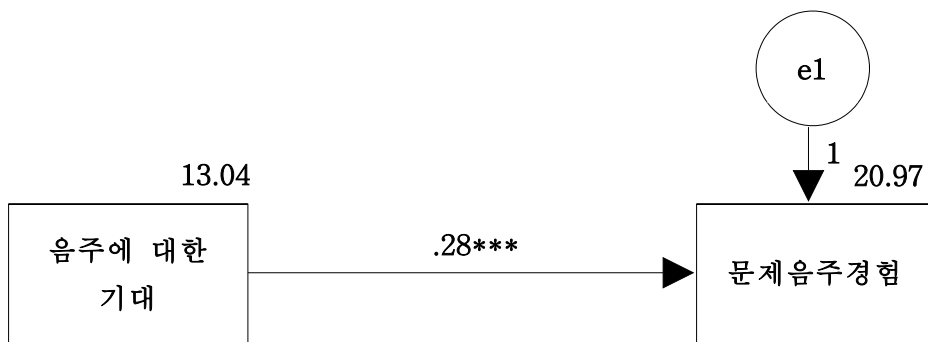
3. 매개효과 검증

음주로 인한 문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요인들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음주에 대한 기대를 독립변인으로, 문제 음주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음주 거절 효능감과 폭음이 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경로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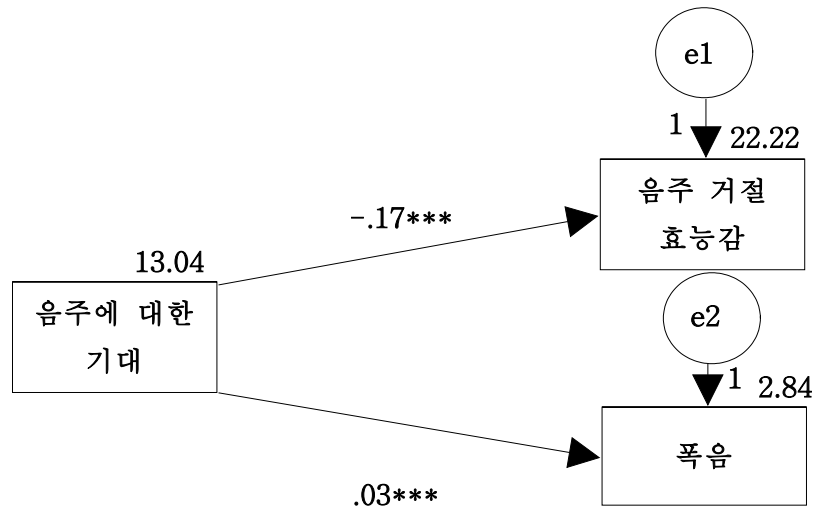
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해야 하고, 또한 각각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유의미해야 함을 검증해야 한다. 그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 효과가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그 효과가 없어지거나 유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감소하게 되면 매개변수에 대해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효과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미할 때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Baron and Kenny, 1986).

음주에 대한 기대에서 음주로 인한 문제 경험으로 이르는 총 효과를 먼저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보이는 것처럼, β 값 .28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음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경험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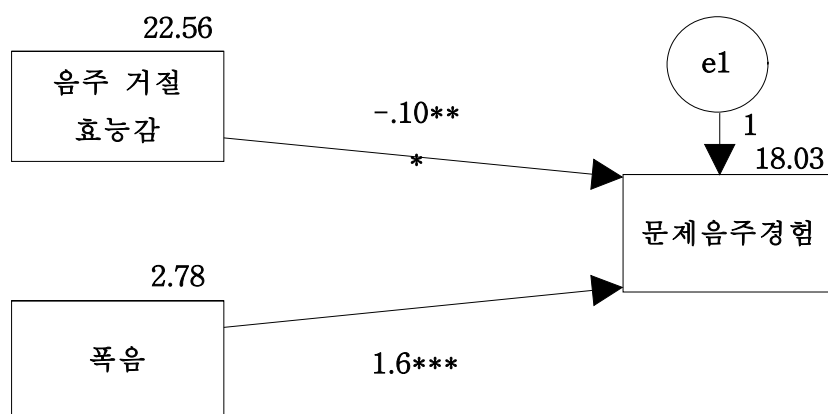
[그림 2]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에 이르는 각각의 경로를 회귀분석 한 결과를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별로 β 값 -.17과 .03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음주 거절 효능감의 경우 부적(-) 상관관계로 음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거절능력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반대로 음주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매개변인 폭음의 경우는 정적(+) 상관관계로 음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폭음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며, 기대가 낮을수록 폭음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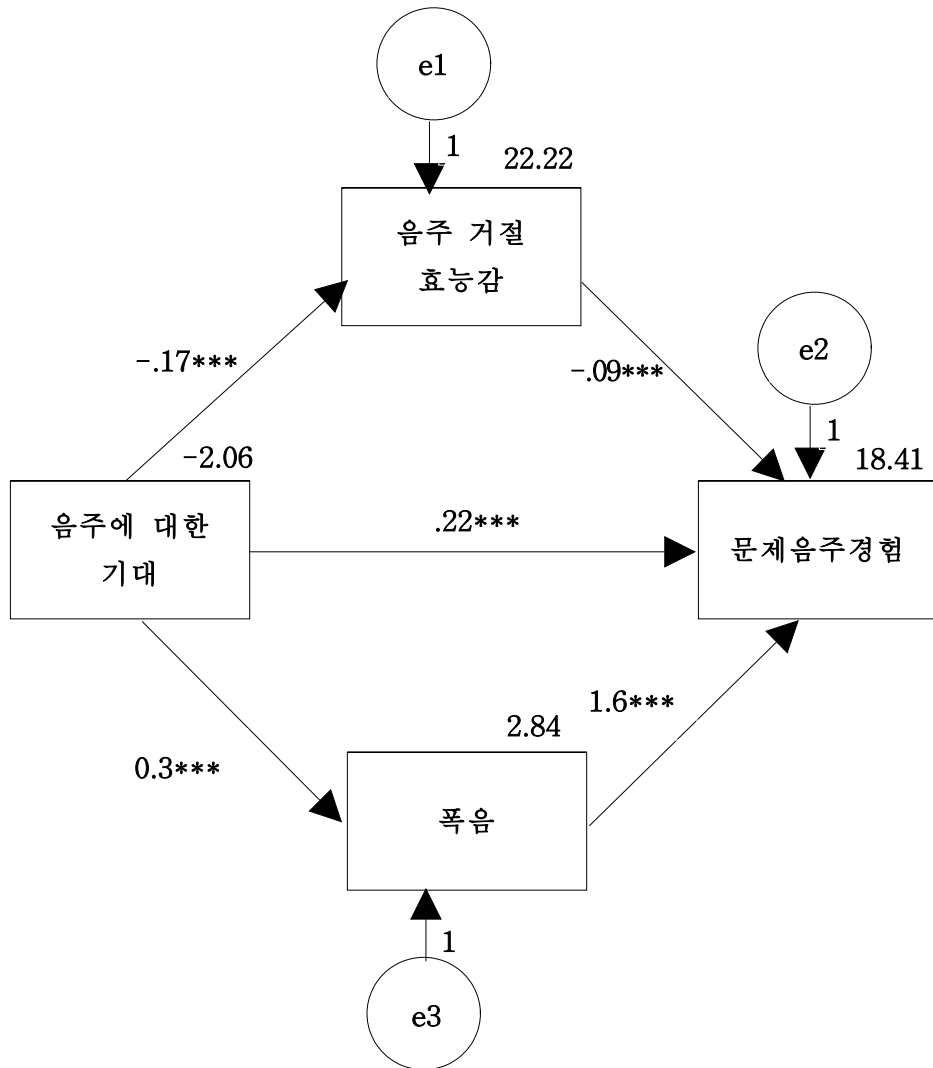
[그림 3] 음주에 대한 기대가 음주거절 효능감과 폭음에 미치는 영향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에 이르는 각각의 경로를 회귀분석 한 결과를 그림 4로 제시하였다. 보이는 바와 같이 각각 β 값 $-.10$ 과 1.6 으로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음주 거절 효능감의 경우 부적 상관으로 음주 거절 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 음주 경험의 발생을 의미하며 폭음의 경우는 폭음 빈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문제 음주 경험의 발생도 늘어남을 의미한다.



[그림 4] 음주 거절 효능감과 폭음이 문제음주경험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보듯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총 효과에 매개변인을 투입하였을 때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그림 5] 매개효과 검증

[그림 5]는 문제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에 대한 기대의 영향력이 매개변인인

음주 거절 효능감과 폭음변수의 추가로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모형이다. 모형 적합도¹⁾는 NFI=.853 IFI=.854, CFI=.852, RMSEA=.190으로 나쁘지 않은 적합도를 보였다. 분석결과 음주에 대한 기대는 매개변인 음주 거절 효능감에 β 값 -.17의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 거절 효능감은 음주로 인한 문제 경험에 β 값 -.15의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에 대한 기대와 폭음 사이에는 β 값 .03($p<.001$)의 정적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폭음과 문제음주경험은 β 값 .16($p<.001$)로 역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폭음의 횟수 역시 증가하며 폭음의 증가에 따라 문제음주경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경로 투입 후 총 효과의 경로계수는 매개경로 투입 전 .28에서 .04 낮아진 .22로 그 수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음주 거절 효능감은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어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는 위에서 본 것처럼 Baron & Kenny의 연구에 의해 제시된 매개구성 4단계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음주 거절 효능감”과 “폭음” 모두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Sobel test²⁾를 통하여 모형에서 나타난 부분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Sobel test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와 크기가 유의미한지를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통해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Sobel, 1982). 따라서 그 결과 값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1.96이상, -1.96이하의

1)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와 상대적합지수(Relative fit index),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수는 절대적합지수와 상대적합지수이다. 절대적합지수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이고, 상대적합지수는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MSEA)와 상대적합지수인표준부합지수NFI, 비표준부합지수NNFI=TLI, 비교부합지수CFI)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RMSEA는 표본크기가 큰 제안모형을 기각시키는 χ^2 의 한계를 보완하기위해 개발된적합도지수로서 0.05 이하이면 우수한 적합도로 0.05~.08 사이 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평가한다 NFI, TLI, CFI는0.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다(이상준 2006).

2) Sobel test 공식 :
$$\frac{ab}{\sqrt{a^2 s_a^2 + b^2 s_b^2}}$$

값이 나오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본다.

Sobel test를 통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음주 거절 효능감”의 경우 $+2.27(p<.01)$, “폭음”의 경우 $+4.74(p<.001)$ 로 나와 경로분석을 통해 밝혀진 매개변인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를 경험함에 있어서 음주 거절 효능감 및 폭음이 그 경로들을 촉진시키거나 경감시킬 것으로 보고 그 두 요인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4년제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총 4,016명 중 지난 한 달 동안의 음주경험이 있는 3,468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여학생이 1,573명이고 남학생이 1,895명이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음주 거절 효능감은 음주에 대한 기대와 문제 음주 경험의 관계를 부적(-)으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음주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음주거절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문제 음주 경험에 대한 발생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혀졌다.

둘째로, 폭음은 음주에 대한 기대와 문제 음주 경험의 관계를 정적(+)으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음주에 대한 높은 기대는 폭음을 높이고 이는 문제 음주 경험의 발생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 거절 효능감과 폭음이 음주에 대한 기대와 문제 음주 경험의 사이에서 매개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음주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음주에 대한 거절능력을 높여주고, 폭음을 조절해주면 문제 음주 경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음주에 대해 적절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음주 거절 효능감을 높이고 음주량을 조절하여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 설계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모든 경로가 유의미 하였으며, 매개효과 투입 시 총 효과의 증감폭은

남학생이 β 값 .267($p < .001$)에서 .205($p < .001$)로 감소하였고, 여학생은 β 값 .303($p < .001$)에서 .244($p < .001$)로 감소폭이 조금 더 증가하였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보여 본 연구 설계 모형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음주량과 음주빈도 폭음율의 차이는 존재한다. 본 연구의 바탕이 된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학생의 월간 음주율은 87.9%, 여학생의 월간 음주율은 82.6%로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음주빈도의 경우에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음주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 폭음의 경우에도 여학생(63.4%)에 비해 남학생(78%)의 폭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을 일으키는데 음주 거절 효능감과 폭음이 매개한다는 본 연구모형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음주에 대한 기대를 낮추면 술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폭음을 방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문제 음주 경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연령기는 대체로 음주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형성된 음주습관은 평생의 음주습관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각종 범죄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음주문화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음주에 대한 적절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음주 거절 효능감을 높여 주며, 음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음주예방관련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대학 당국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자면, 본 연구를 진행하며 가졌던 부족함 중 척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주 거절 효능감 척도나 음주에 대한 기대 척도의 경우 몇몇의 음주관련 연구에서 사용되어 그 신뢰도가 검증된 것이기는 하나, 그 대상이 대학생이 아니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자료수집과정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 법을 사용했다는 점과 일상생활에서 문제 음주 경험을 심도 있게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제 음주 경험과 관련해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 보다는 집중적인 면접기법이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 면접을 통한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광기(2008). 수원시 대학생 음주실태 조사. 인제대학교 음주연구소.
-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부(2003). 대학생의 폭음(binge drinking)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조사 및 대학생 음주문제 예방정책 개발,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
- 이민규(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2권, pp. 165-179.
- 이상준(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재(2001). 대학생의 음주양태, 보건과 사회과학, 제10권, pp. 79-96
- 이지현, 제갈정, 김동학(2010).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센터.
- 류미, 이민규, 신희천(2010). 대학생의 폭음 관련 사회인지적 요인과 음주 정도의 관계: 지각된 음주규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6권, pp. 63-79
- 탁영란, 윤이화, 안지연(2007). 초기 청소년의 음주경험, 음주지식, 음주기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7권, pp. 35-43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10).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 서울: S&Y
-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2005). 남녀 대학생의 음주 문제 위험요인: 사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pp. 1003-1019.
- Abrams, D. B., & Niaura, R. S. (1987). Social learning theory. In H. T. Blane & K. 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 Baldwin, A. R., Oei, T. P. S., & Young, R. (1993). To drink or not to drink: The differential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 quantity and frequency of alcohol consump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7, pp. 511-530.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1173-1182.

- Connor, J. P., Young, R. McD., Williams, R. J., & Ricciardelli, L. A. (2000). Drinking restraint versus alcohol expectancies: Which is the better indicator of alcohol proble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 61, pp. 352-359
- Goldman, M. S., Brown, S. A., & Christiansen, B. A. (1987). Expectancy theory: Thinking about drinking. In H. T. Blane & K. 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pp. 181-226). New York: Guilford.
- Hasking, P. A., & Oei, T. P. S. (2002). The differential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coping resources in predicting alcohol consumption in community and clinical samples.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Vol. 10, pp. 465-494.
- Jones, B. T., & McMahon, J. (1993). Negative and positive alcohol expectancies as predictors of abstinence after discharge from a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A one-month and three-month follow-up study in 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 55, pp. 543-548.
- Laforge, R. G., Maddock, J. E., & Rossi, J. S. (1999). Replication of the temptations and decisional balance instruments for heavy, episodic drinking on an adult sample.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1, 67 (Abstract).
- Leigh, B. (1989). In search of the seven dwarfs: Issues of measurement and meaning in alcohol expectanc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50, pp. 361-373.
- Martino, S., Collins, R., Ellickson, P., Schell, T., & McCaffrey, D. (2006). Socio-environm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s'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 prospective analysis. *Addiction*, Vol. 101, pp. 971-983
- Maddock, J. E. (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ecisional Balance and Processes of Change Inventories for Heavy, Episodic Drinking*. University of Rhode Island. Unpublished Master's Thesis.
- Morawska, A., & Oei, T. P. S. (2005). Binge drinking in university students: a test of the cognitive model. *Addictive Behaviors*, Vol. 30, pp. 203-218

- Oei, T. P. S., & Baldwin, A. R. (1994). Expectancy theory: A two-process model of alcohol use and ab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 55, pp. 525-534.
- Oei, T. P. S., & Morawska, A., (2004). A cognitive model of binge drinking: The influenc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ddictive Behaviors*, Vol. 29, pp. 159-179
- O'Neil, S. E., Parra, G. R., & Sher, K. J. (2001). Clinical relevance of heavy drinking during the college years: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perspectiv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Vol. 15, pp. 350-359.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San Francisco: Jossey-Bass.
- Wechsler, H., Davenport, A., Dowdall, G., Moeykens, B., & Castillo, S. (1994).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JAMA*, Vol. 272, pp. 1672-1677.
- Wechsler, H., Dowdall G. W., Davenport, A., & Castillo, S. (1995). Correlates of college students binge drinking.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85, pp. 921-926
- Wechsler, H., Issac, N. (1992). Binge drinkers at Massachusetts colleges: prevalence, drinking styles, time trends, and associated problems. *JAMA*.
- Wechsler, H., Lee J.E., Nelson T.F., Lee H. (2001). Drinking levels, alcohol problems and secondhand effects in substance-free college residences: results of national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 62, pp. 23-31.
- Young, R. M., & Oei, T. P. S. (1993). Grape Expectations: The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in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problem dr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28, pp. 337-364.

ABSTRACT

The Effects of Alcohol Expectancies on Alcohol-Related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inge Drinking as a Mediating Factor

Lee, Ji-Hyun* · Choi, Hong-Il*

Although alcohol expectancy,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inge drinking have been demonstrated to be useful predictors for the onset of alcohol-related problems, the specificity of these constructs to alcohol-related problems has not been previously demonstrated among a large sample of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the direct path from alcohol expectancy to alcohol-related problems was in any way moderated by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inge drinking.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468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alcohol expectancy significantly predicted alcohol-related problems, however, this direct path was partially counterbalanced by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t the same time, the direct path was also partially moderated by binge drinking.

Key Words : alcohol expectancie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binge drinking, alcohol-related problems

투고일 : 9월 6일, 심사일 : 9월 17일, 심사완료일 : 10월 22일

*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KARF)